

**파멸로**

**향한 질주**

평양출판사

주체111(2022)

## 책을 내면서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가 《대통령》 감투를 뒤집어쓴 때로부터 반년이 흘렀다. 반년이라는 시간은 장구한 력사에 비해볼 때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자는 길지 않은 이 기간에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는 입에 게거품을 물고 온갖 악담을 다 늘어놓으며 삼천리 강토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는가 하면 남조선사회에 파쑈독재의 칼바람을 일으키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오만과 독선, 무지와 무능으로 만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상전에게 아부굴종하고 숙적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고있다.

지금 내외에서는 광란적인 반공화국대  
결과 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  
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남조선을 더욱  
참담한 암흑천지, 생지옥으로 만든 윤석  
열역적패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더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행태를 두고 이  
렇게 썼다.

《지금 윤석열<정부>는 취임후 몇개월  
동안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있다. 가장  
위험한 시대에 가장 위험한 <정부>가 거  
침없이 질주하고있다.》

가장 위험한 시대에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정부》.

하다면 이 질주는 어디로 향한것인가.  
두말할것없이 그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의  
종국적과멸이다.

## 차 례

1.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도마》우에 올라선 《정권》 …… (4)  
민족의 주적 …… (4)  
대결에 환장한 인간오작품 …… (12)
2. 오만과 독선, 강권과 전횡, 무지  
몽매로 침몰하는 《윤석열호》 …… (26)  
극악한 불망종 …… (26)  
막돼먹은 《대통령》 …… (37)
3. 사대매국으로 자멸하는  
특등머저리 …… (47)  
가련한 특등친미주구 …… (47)  
섬나라의 추악한 하수인 …… (56)

# 1.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도마》우에 올라선 《정권》

## 민족의 주적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렬의 비극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77년의 세월이 흘렀다. 인간의 한생과 맞먹는 이 나날 우리 겨레가 뼈저리게 새겨안은 교훈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 병적인 대결관념에 사로잡힌자들이 남조선에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레외없이 북남사이의 긴장이 격화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소중한 열매들이 여지없이 짓밟히게 된다는것이다.

랭전의 세기였던 20세기를 지나 21세기도 2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 남조선에

반공화국대결광이 또다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낭떠러지로 몰아가고있다.

그자가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역도가 《대통령》감투를 쓸 때부터 사람들은 윤석열《정권》이 과거 보수《정권》들의 대결정책을 답습하게 될것이라는 예평들을 내놓은바 있다.

하지만 역도는 내외의 그 예상을 뛰어넘어 선임자들을 릉가하는 극악한 대결광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윤석열역도가 집권을 전후하여 떠들어온 《북주적론》을 놓고보아도 이자의 반공화국대결흥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남조선에서 북에 대해 《주적》이란 표현이 처음 등장한것은 1995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였다.

당시 집권자였던 《문민》파썬광은 남

조선 각계층의 통일열의를 짓밟고 남조선사회에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국방백서》에 《북은 주적》이라고 쪼아박았다.

그후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활화산처럼 분출되면서 남조선에서 《북주적론》은 민심의 비난과 배격을 받게 되었다.

리명박역도에 의해 《주적》이란 표현이 2010년부터 다시 《부활》하였지만 민족화합을 요구하는 민심에 의해 남조선의 전 《정권》은 《북주적론》을 감히 《대북정책》으로 전면에 내들지 못하였다.

이러한 《북주적론》을 또다시 정책화한 것이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역도는 《대통령》선거기간 제놈의 사회교제망에 《주적은 북》이라고 써놓았고

2022년 4월 미국언론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북은 주적》이  
라고 로골적으로 지껄이면서 자기가 권력  
을 쥐면 《원칙적인 대북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비린칭을 돋구었다.

뒤이어 괴뢰군부것들을 내세워 《북인  
민군과 북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장병정신교육교재를 괴뢰  
군의 각 군종, 병종부대들에 배포하는  
놀음을 벌리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광기에 의해 괴뢰군  
은 물론 남조선사회전반에서 《흐트러진  
주적관》부터 바로세운다는 이른바 《정  
신교육》과 《정신기강확립》놀음이 벌어  
지는 등 반공화국적대의식이 대대적으로  
고취되고있다.

윤석열역도가 제창하는 《북주적론》은  
공화국의 존엄높은 체제에 대한 전면부  
정이다.

이것은 온 민족앞에 확약한 북남선언들과 합의들에 대한 로골적인 파기이며 공공연한 대결선언이다.

역도는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주적》으로 정함으로써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기도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였다.

사실 력대 괴뢰집권자들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은자들이 없다.

그러나 공화국정권의 《붕괴》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흡수통일》을 임기간에 추구할 핵심목표로 내세운 대결미치광이는 없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인민 스스로가 선택한것으로서 이를 부정하는것은 곧 우리 인민에 대한 전면도전이다.

윤석열역도의 《북주적론》은 북침도발을 기정사실화한 로골적인 전쟁론이기도

하다.

《주적》과의 극단적인 대결은 기필코 물리적충돌, 전쟁으로 이어지기마련이다. 국력의 상징인 군대를 교전상대로, 《주적》으로 삼았다는것은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윤석열역도는 《북주적론》에 따라 그 누구에 대한 《선제타격》과 이른바 《한국형3축타격체계》(선제타격체계, 미싸일방위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구축을 떠들며 북침을 노린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윤석열역도의 《북주적론》은 비참한 종말을 자초하는 자멸론이다.

우리 공화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이다.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접어들지 못하는 우리 공화국을 한갓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한 윤석열역적패당

따위가 《북주적론》을 떠들며 어찌보겠  
다고 하는것이야말로 썩은 닭알로 청바위  
를 깨겠다는것과 같은 무모한 망동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이 윤석열역적  
패당의 전쟁대결책동에 대해 화약고안에  
서 불장난하는 철부지를 보는 느낌이다,  
《안보초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큰  
일나겠다고 걱정하였는데 바로 그 불안  
과 우려가 현실로 펼쳐지고있다고 역적  
패당을 비난조소하는것은 너무도 당연  
하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인터넷들에도 《웃겨서 죽는줄 알았다.  
이동식 ICBM(대륙간탄도미싸일)을 보유한  
북조선을 주적으로 삼고 선제타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용감하게 어리석은짓이  
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서  
방세계는 발작을 일으킬것이다.》, 《바보  
같은 자식이다.》와 같은 글들이 수많이

오르고있다.

무지에 객기가 더해지면 재앙을 면할 수 없다.

공화국을 격멸대상으로 삼고 겨레의 운명을 류혈과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짜주적, 천하에 둘도 없는 재앙거리이다.

미욱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역도는 《북주적론》을 들고나옴으로써 제스스로 민족의 주적, 과녁으로 되었다. 우리 국가와 군대를 《주적》으로 삼은 이상 윤석열 《정권》은 민족단합의 일방이 아니라 철저히 섬멸해야 할 원수이다.

윤석열역도는 《북주적론》으로 얻을것은 비참한 자멸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 대결에 환장한 인간오작품

윤석열역도는 《대북정책》의 핵심목표로 《북비핵화》를 내들고있다.

원래 조선반도핵문제는 미국이 핵무기를 남조선에 배치하고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함으로써 산생되었다.

미국은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북침핵전쟁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공언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속에서 우리 공화국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고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의 정세는 우리 공화국이 핵을 보유한것이 얼마나 정당하며 옳은 선택이

였는가 하는것을 응변적으로 실증해주고 있다.

조선반도에 핵문제가 산생되는데는 미국의 핵무기반입을 묵인, 비호하고 핵전쟁책동에 같이 춤을 추어온 남조선역적패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력대 남조선괴뢰정권은 미국이 우리 민족을 수십수백번 몰살시키고도 남을 위험천만한 핵무기를 제땅에 뼈젓이 전개해놓는데 대해 우려는커녕 오히려 두둔해나섰을뿐 아니라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에 적극 가담해나섰다.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이 되어 한 일도 미국의 초대형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최신핵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외세와 함께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린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이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을 걸고

들면서 그 무슨 《북비핵화》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그들이 친미사대와 반공화국대결에 얼마나 미쳐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피퇴역적패당이 저들이 해야 할바는 하지 않고 《북비핵화》에 대해서만 떠드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핵 그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해보자는 음흉한 기도에 따른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북핵포기우선론》을 내걸었다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상전과 선행《정권》의 교훈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는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년간의 간고

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이다.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 공화국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상투적인 설교와 궤변, 제재압박, 군사적 위협에 못이겨 잘못된 선택을 한탓에 비참한 말로를 걷고 비극적인 마감을 맞은 20세기, 21세기의 수많은 력사의 사건들을 잘 알고있다.

최근 우리 공화국은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철석의 의지를 담아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 고착시키였다.

핵무력정책을 법화해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였다.

핵은 공화국의 국위, 국체이며 절대적 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공화국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환경이 변해야 한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책동이 끝장나지 않는한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강화로정은 끝나지 않을것이다.

하기에 《포린 폴리시》, 《파이낸셜 타임스》,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과 전문가들도 《지난 수십년간 워싱턴과 도쿄, 서울의 정치가들이 북조선의 정책을 바꿔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모두 실패했다. 북조선에 대한 무력위협도, 동맹과의 협력도, 북조선에 대한 유인책도, 엄격한 경제제재도 해법이 아니였다. 이제는 워싱턴의 어느 누구도 북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 능력이 없다는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대조선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하며 북조선의 핵무기보유국지위를 인정하고 그우에서 진지한 거래를 모색해야 한다.》,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미국정부의 고집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북조선은 이미 비핵화싸움에서 이겼다. 쓰디쓴 현실이지만 어느순간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이제는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때이다.》라고 주장하고있다.

윤석열역도가 두눈과 두귀를 가지고서도 세인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달라진 세계의 정치력학구도와 시대적흐름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북비핵화》와 같은 얼빠진 소리를 계속 늘어놓으며 어리석게 놀아대는것은 역도의 속물적본태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다시한번 부언하건대 정의와 평화의 보검인 핵을 누가 일방적으로 내놓으라고

해서 순순히 내놓을 우리 인민이 아니며 친미주구인 윤석열역도따위가 지껄인다고 해서 그것이 흥정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또한 우리 공화국이 핵을 포기하면 《북경제와 북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그 무슨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간특한 간상배, 협잡군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고있다.

윤석열역도의 《담대한 구상》이란 본질에 있어서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리명박역도의 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을 끄집어내여 간판만 바꾸어단 것이다.

역적패당이 미국의 식민지예속경제나 가지고 감히 자립, 자존으로 번영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해 시야비야하며 《선심》을 쓰는듯이 가소롭게 놀아대는것이야말로 일종의 정치만화

이다.

우리 공화국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짜과 바꾸어보겠다고 개꿈을 꾸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추태에 정말 아연함을 금할수 없다.

더구나 경제와 민생파탄으로 하여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자마자 막다른 위기에서 허덕이면서 언제 《대통령》자리에서 쫓겨날지 몰라 극도의 불안속에 살고있는 주제에 《상당한 경제적지원》에 대해 어찌 고저찌고하는것은 삶은 소대가리도 웃다 꾸레미 터질노릇이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그 누구를 《걱정》하기 전에 인간생지옥, 암흑의 세상인 제 집안부터 바로잡을 《담대한 구상》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 운운하면서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들이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남조선언론들이 《<정부>는 북의 <비핵화>를 유도하겠다고 하며 <담대한 구상>을 내놓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대한 구상>은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담대한 구상>에 북의 <안보우려>를 해소할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련합훈련의 확대, 강화를 도모하고있다. <담대한 구상>이 획기적인 결과는 고사하고 소박한 성과도 내기 힘들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은 이러한 모순에 기반을 둔다.》고 비난조소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체신머리없고 무지한 정치저능아인 윤석열역도의 본색은 반공화국대결적인 《북인권》소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집권전부터 윤석열역도는 있지도 않는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며 반공

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였다.

이자는 《대통령》 후보시절 《북인권개선을 위해 유엔과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떠벌이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매달릴 흥심을 드러냈다.

특히 집권후 윤석열역도는 《북인권개선》을 떠들며 악명높은 대결광신자인 박근혜역도마저 감히 하지 못한 이른바 《북인권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있다.

또한 괴뢰외교부의 《북인권국제협력대사》자리에 극악한 대결분자를 앉히고 《북인권정책협의회》라는 반공화국대결모의관을 벌려놓았으며 유엔무대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 결탁하여 《북인권결의안》조작에 적극 나섰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무슨 《북인권문제》를 거들고있는것은 우리에게 대한 무지를 드러낸것인 동시에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는 정치적도발이다.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인민대중 제일주의사회인 우리 공화국에는 《인권 문제》란 애당초 있을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공화국의 그 어디에 가보아도 매일 매 시각 들려오는것은 자기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당의 은정,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에 대한 인민들의 걱정의 목소리이다.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우리 공화국의 진모습은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시적인 대책들을 끊임없이 취해나가는데도 어려웠고 어려울수록 인민들에게 더 큰 복리를 안겨주기 위해 천신만고를 다하며 분투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

다.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평양시와  
검덕지구 등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  
민들을 위한 살림집건설이 통이 크게 벌어  
지고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  
한 영양식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질적인 성과, 실제적  
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투쟁이 과감  
히 전개되고있는 현실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과 국가의 헌신적복무가 얼마나 숭고한  
경지에 이르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인권이자 국권이다.

인권문제는 오히려 미국의 강점하에 놓  
여있는 남조선에 있다.

미제침략군의 군화발에 인민들의 생명,  
재산이 처참하게 짓밟혀도 하소연조차 할  
데 없고 미국의 지배로 민족의 자주적존  
엄이 여지없이 유린되고있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남조선에서는 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주, 민생, 인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사회의 1%가 특권, 특세를 누리며 부귀와 사치, 향락을 누리는 반면에 사회의 99%가 빈궁과 무권리, 천대와 멸시, 버림과 압박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오죽하면 련애와 결혼, 자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인 《3포세대》, 모든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인 《N포세대》, 《벼락거지》(집값이 올라 더 빈곤해진 무주택자), 《이생망》(이번 생을 망쳤다는 의미), 《령끌》(령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해 집을 산다는 의미)과 같은 낱말들이 남조선에서 류행어로 되고있겠는가.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언론은 《현 상황은 누구는 초호화요트를 타고 누구는 난파선의 파편을 붙잡고 바다에 떠있는 모습을 방불케 한다, 가진자는 더 큰 부

자가 되고 힘없고 <뺨>이 없는자는 빈궁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인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를 비난하는 기사를 발표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남조선을 이처럼 험악한 인권동토대로 만든자들이 지어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악성비루스가 묻은 너절한 물건짝들과 뼈라를 우리 경내에 들이밀어 우리 인민에게 고통을 들썩운 장본인들이 그 누구에게 감히 삿대질을 하면서 《인권》소동을 벌리는것이야말로 뻔뻔스럽고 가소로운 망동이다.

무지와 무모, 어리석은 객기와 무분별한 망동으로 얻을것은 비참한 종말뿐이다. 남조선의 선행독재자들의 가련한 말로가 그것을 보여준다.

지금 윤석열역도가 선행독재자들이 걸은 그 파멸의 길을 그대로 걷고있다.

## 2. 오만과 독선, 강권과 전횡, 무지 몽매로 침몰하는 《윤석열호》

### 극악한 불망종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때만 해도 <설마>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윤석열은 적폐검찰출신들을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주요요직들에 앉히고 폭력과 강권을 국정운영원리로 내세웠다.》

이것은 2022년 6월 남조선 어느한 신문에 실린 기사이다.

남조선에서 검찰은 력대적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각계층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온 파쑈독재권력의 시녀이다.

이미 언급한 기사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대통령》감투를 쓰자마자 이 폭압기구에서 악명을 떨친자들을 권력의 주요자리들에 앉히었다.

그리하여 검찰에서 윤석열역도의 심복, 측근이 되어 전횡을 일삼던자들이 피뢰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요직들을 차지하고 판을 치고있다.

남조선언론들과 각계층은 《전두환때는 석사우에 박사, 박사우에 룡사( 룡군사관 학교)란 말이 있었는데 윤석열때는 석사우에 박사, 박사우에 검사이다.》, 《검찰편중, 지인선택인사이다.》라고 비난하고있다.

하지만 윤석열역도는 각계층의 이러한 비난단죄에 대해 《전 <정부>에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도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오만하게 놀아대고있다.

그야말로 민심도 여론도 안중에 없는 불망나니의 행태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도는 원래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먹자판에만 끼워돌아가던 자이다. 이자는 법권을 휘두르며 온갖 전횡을 일삼는 검사직을 부러워하면서 사법시험에 응시하였지만 워낙 머리에 든것이 없는자이다보니 무려 8번이나 시험에서 미끄러졌다가 9번째만에야 겨우 합격하여 30대중반의 늦은 나이에 검사직업을 얻었다.

역도는 아이때부터 《골목대장》노릇을 하면서 폭군기질을 키우다보니 검사가 되어서도 동료들과 식사를 하다가도 후배검사가 거들먹거린다고 걸고들며 그 자리에서 두들겨패는가 하면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들을 무시로 끌어들 손찌검으로 토설을 받아낸것으로 하여 주변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이러한자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 군사파쇼독재를 무색케 하는 검찰독재통치로 자주와 민주, 생존권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무참히 짓밟고 정치적반대파들에 대한 숙청놀음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초 남조선에서는 《학생만화공모전》에 고등학교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가 제출되어 내외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만화에는 윤석열역도의 상통을 형상한 증기기관차가 흰 연기를 내뿜으며 질주하는데 놀란 사람들이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있다. 특히 만화는 기관사자리를 차지하고 렬차를 미친듯이 몰아대면서 호들갑을 떨고있는 역도의 녀편네 김건희와 객실마다에 서슬푸른 칼을 뽑아 들고 앉아 으윽대는 검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한갓 녀편

네의 조종을 받으며 민심에 역행하고있는 《검찰공화국》이라는것을 신랄히 폭로하였다. 만화는 《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제일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어 금상을 받았으며 경기도 부천에서 진행된 국제만화축전기간 만화박물관에 전시되어 널리 소개되고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무지무능과 악정에 분노한 민심이 그대로 담겨진 만화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평가하듯이 그림에는 윤석열역도의 역겨운 행적이 적라라하게 풍자되어있다.

역도가 너편네 김건희의 앙탈질에 청와대를 《룡와대》로 옮기고 너편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들을 선정하는 꼭두각시짓만 하고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국정》운영을 한답시고 한짓이란 도란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것이 아니라 검찰측근들을 내몰아 민주개혁세력을 탄압하고 저들부부의 호화생활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는가 하면 공화국에 대한 《압도적대응》을 고아대며 침략전쟁연습에 발광하는것뿐이다.

역도의 행위가 얼마나 증오스러웠으면 고등학교학생까지 역도를 비난하는 풍자 만화를 그리였겠는가.

하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내부에서 만화가 큰 인기를 끌자 철면피하게도 《정치적주제를 로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느니, 《표절》이니, 《륜리범죄》니, 《엄중히 경고한다.》느니 하며 만화를 그린 학생을 탄압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남조선을 전면파국으로 몰아가는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환멸, 분노를 담은 나어린 학생의 만

화까지 두려워하며 폭압의 칼을 빼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정치깡패가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윤석열역도는 피뢰행정안전부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함으로써 검찰과 함께 경찰도 폭압통치, 강권정치의 돌격대로 만들었다.

불법무법의 리승만 《정권》이 조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 기간 피뢰경찰은 보수집권세력의 돌격대가 되어 정치적수들을 매장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인 활동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력대 파썸집권자들이 경찰을 틀어쥐고 반인민적악정과 통치유지를 위해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는가는 지나온 력사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1979년 8월당시 《신민당》사에서 룡성 투쟁을 하던 로동조합원 김경숙이 경찰진

압과정에 추락사망한 사건, 1986년 부천에서 한 경장이 녀대학생을 성고문한 사건, 1987년 1월 감행된 박종철고문학살사건, 1991년 4월 경찰특수진압부대인 《백골단》에 의해 감행된 강경대학살사건…

파쑈독재시기 폭압경찰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이 당한 피해와 고통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즐기찬 투쟁과 사회 각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1991년 경찰의 《독립》과 《중립》이 선포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명색뿐이고 여전히 경찰은 보수집권세력의 충견이 되어 반인민적악정을 철저히 뒤받침해왔다. 리명박, 박근혜 집권시기 감행된 쌍룡차로조탄압사건, 룡산철거민학살사건, 백남기농민학살사건 등도 바로 보수집권패당의 지령과 묵인조장하에 감행된 파쑈폭압통치의 산물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이러한 파쑈폭압의

돌격대인 경찰을 단단히 거머쥐고 박정희, 전두환역도의 집권시기와 같은 파쇼독재시대를 되살리려 하고있다.

검찰총장을 해먹던 과정에 1인독재통치기반을 실현하자면 검찰은 물론 경찰을 한손아귀에 거머쥐여야 한다는것을 절실히 통감한 윤석열역도이기에 수사권까지 차지하고있는 경찰이라는 기름진 고기덩이를 놓치려 하지 않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정계, 시민사회단체,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되고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수 있다, 《국민적합의》없는 《행정안전부》의 독단적경찰통제는 시대흐름에 역행한다, 윤석열《정부》는 민주와 법치의 회복을 약속했는데 그 턱밑에서 법치주의훼손시도가 진행중이다, 권력이 치안사무를 장악

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일  
상적으로 위협했던 시절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경찰장악놀음은 경찰을  
통제하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권  
위주의적발상》이며 이는 곧 독재《정권》  
으로 회귀하려는 시도이라고 신랄히 까뵈  
히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이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구들  
을 저들의 정치적시녀로 만들어 반인민적  
통치체제를 강화하여 지난날의 독재시대  
를 전면부활시키려 하고있다는것을 여실  
히 실증해주고있다.

윤석열역도가 파썬독재로 악명떨쳤던  
박정희와 전두환은 물론 리명박과 박근  
혜를 비롯한 이전 독재통치자들을 숭상  
하며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겠다고  
로골적으로 공언하고있는 리유도 바로 여  
기에 있다.

독사는 죽을 때까지 독사이듯이 보수라는 터밭에서 떨어져나온 윤석열패당의 체질적근성, 독재적기질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야만적인 파썸독재통치를 수수방관한다면 앞으로 온 남조선땅이 정의와 진리가 말살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인간생지옥,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더욱더 화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력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자들, 독재정치, 파썸통치를 일삼은 력대피뢰보수집권자들의 말로는 불행하기 그지없었다.

《유신》독재자가 비명횡사한것처럼, 대중적항쟁에 의해 군부파썸독재가 무너진것처럼 독재정치의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역도도 비참한 종말을 면할수 없다.

## 막돼먹은 《대통령》

윤석열역도는 도무지 정치인은커녕 인간다운 면모란 찾아볼수 없는 언사와 짓거리로 만사람의 혐오와 경멸, 배격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사춘기부터 술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지독한 술도깨비였던 역도는 집권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미명하에 매일 이다싶이 각계 인물들과 술판을 벌리는가 하면 《민생현장방문》이라는 구실을 붙여 각 지역의 식당들에 찾아가 지방특산물을 안주로 삼아 술을 마셔대며 민심과 여론의 비난의 대상으로 되었다.

지어 아래것들에게 점심에 술을 먹어도 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집주변의 식당에서 23시까지 술을 퍼마시고 옆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가누면서도 《딱

한잔만 더하자.》고 지껄여댄것이 들통나술로 정사를 보는 《술통령》이라는 조롱을 당했다.

윤석열역도의 씨알먹지 않고 막돼먹은 본색은 《대통령》선거기간 췌친 망발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대통령》선거기간 역도는 주에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로동착취발언》, 육체로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것이라는 《근로자비하발언》,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생명무시발언》, 1980년대 남조선의 민주화운동은 외국에서 수입해온것이라는 《민주화운동모독발언》, 전두환은 집권기간 정치를 잘하였다는 《독재찬양발언》,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당원들은 위장당원이라고 한 《제편헐뜯기발언》,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는 《저학력자모욕발언》 등 무수한 실언들과 막말로 하

여 《1일 1망언후보》, 《무지몽매한 인간》, 《사람잡는 정치인》이라는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또한 《대통령》선거기간 진행된 TV토론회때 측근이 써준 연설문외에는 한마디도 내용을 전개하여 말할줄 모르고 경쟁상대가 무엇을 물으면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라고 되묻고 《한번 좀 설명해달라.》고 빌붙는 등 횡설수설, 동문서답식답변으로 하여 시청자들을 아연케 하였다.

선거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간 곳의 방명록에 《지평》을 《지평선》으로 잘못 쓰고 《반드시》를 《반듯이》로 써놓는가 하면 인천시에 속해있는 강화도에 대해 《강화도가 인천보다 얼마나 큰가?》라고 물어보아 초보적인 철자법도, 지리도 모르는 무식쟁이로 비난받았다.

심지어 자기의 《정책》을 발표하는 토

론회라는데 나서서 연설을 하려다가 사전에 준비해놓은 연설문이 연탁에 설치한 화면에 뜨지 않아 2분간이나 말을 못하고 눈만 깜빡거리고있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된적도 있다.

역도는 말할 때면 머리를 좌우로 흔들는 괴이한 습관이 있어 《도리도리 운》, 《운도리탕》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항상 다리를 째 벌리고 앉는것으로 하여 《쩍벌남》으로 불리우다 못해 인터넷에서 《아래도리만 보고 누군지 맞히기》라는 풍자유희의 주인공으로 되었으며 렬차안에서 구두발을 앞의자에 빼젓이 올려놓고도 그것이 공중도덕에 어긋난것인지도 모르는 《불량뱅이》로 비난받았다.

그런가 하면 일을 한다는 냄새를 피우기 위해 빈 컴퓨터화면을 보고있는 사진, 아무것도 씌여있지 않는 백지뭉음을 중요한 문건처럼 들여다보는 사진 같은것

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가 여론의 조소와 야유의 대상으로 되고 최악의 악성전염병사태에도 불구하고 꺾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당에 아래것들을 무리로 끌고가 방역규정을 앞장에서 위반하여 식당주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한 몰상식한자이기도 하다.

학창시절부터 부화방탕한 생활을 추구한 역도는 온전한 결혼상대가 없이 나이만 처먹다가 나중에 저보다 나이가 12살이나 아래이고 특히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접대부로 있으면서 매춘행위를 해온 김건희에게 반하여 2년동안이나 따라다닌 끝에 50살이 넘어서야 겨우 결혼하였다.

결혼후 역도는 그 체통에 어울리지 않게 김건희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정복당하여 치마바람에 놀아나는 특등머저리로 비난받고있다.

김건희는 어려서부터 에미의 영향을 받

고 점쟁이들을 찾아다니였으며 윤석열은 《령적인 기》가 있어 나와 련결되었다, 신은 내리지 않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관상을 더 잘 본다, 시간이 있으면 도사들과 함께 있는것이 유익하다고 자랑스럽게 떠든 지독한 미신중독자이다.

윤석열역도는 2012년 《무정스님》이라는 점쟁이의 중매로 김건희와 만난 후 그가 점지해주는 무당의 사주팔자에 운명을 맡기고 살아오고있다.

이런자이기에 《대통령》선거운동기간 《건진법사》라는 사이비종교인을 선거조직의 고문자격으로 끌어들이고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를 새기고 다니면 《대통령》이 된다는 그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하는 머저리짓을 하였다.

피퇴대통령후보자들의 토론회당시 윤석열역도의 손바닥에 새겨진 《王》자가 TV 화면을 통해 드러난 후 남조선 각계 인

사들이 비난과 조소를 퍼부은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주변나라들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 《<대통령>선거후보가 미신에 매달리는것은 <국가적수치>》， 《정치적능력부족으로 점쟁이의 조언에 의지하는 <대통령>후보》， 《유럽에서 수백년전에 없어진 원시적인 종교행위도 서슴지 않는 윤석열》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지어 윤석열역도는 청와대가 풍수지리적으로 북악산이 풍기는 《암운》과 지심에서 솟구치는 《불길한 기운》으로 《살기》가 뻔했기때문에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암살당하였고 퇴임후 감옥귀신이 되었으니 절대로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녀편네의 꼬드김을 지상의 명령처럼 받아들여 엄청난 액수의 《혈세》를 들여 《대통령》사무실을 청와대에서 괴뢰국방부청사가 있던 룡산으로 옮기는 해피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역도는 《대통령》선거기간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륜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등용하겠다, 각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능력과 경륜을 중시하는 《인사정책》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능력위주, 경력위주의 《인사공약》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였다.

그러나 집권후에는 자기와 인연이 있거나 녀편네 김건희가 추천한 검찰출신, 친척, 친우, 동창들과 부정부패전과자들을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요직들에 들여앉힘으로써 내외에서 《검찰공화국》, 《끼리끼리<정부>》, 《동아리<정권>》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새는 법이다.

2022년 9월말 영국여왕의 장례식과 유

엔총회참가를 구실로 해외행각에 나섰던 역도는 정작 영국에 가서는 교통혼잡을 톡대고 여왕의 령구를 찾아 조의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미국에 가서는 《(미국)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찌나.》라는 상스러운 말을 내뱉아 세계를 경악케 했다.

역도의 망발이 공개된 후 보수패거리들 조차 아연하여 어쩔바를 모르고 야당것들은 《외교참사》라고 역도를 몰아댔으며 인터넷에는 《부끄러움은 국민몹》, 《제발 어디 나가지 말고 룡산에 처박혀 있어라.》, 《정상인이 아니다.》와 같은 글들이 대대적으로 올랐다.

역도에게 《이 새끼들》로 지칭된 미의회 의원들은 그들대로 《지지를 20% 운, 네 일이나 잘해라.》고 역도에게 주먹을 내흔들었고 세계언론들은 《남조선<대통령>, 미의회를 <바보>로 모욕한것이 포착됐

다.》고 대서특필하며 역도를 몰아댔다.

바빠맞은 윤석열역적패당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보고 그랬다고 《변명》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남조선 각계의 더 큰 비난과 조소를 불러일으켰다.

윤석열역도가 이처럼 막돼먹고 해피망측한짓만 골라하는것으로 하여 역도의 지지률은 남조선정치사상 류례없는 최악의 계선으로 곤두박질하고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 언론은 윤석열역도의 지지률이 위험계선에 들어선데 대해 폭로하면서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치거리가 됐다.》, 《윤석열이 국민과 군에 의해 권력을 박탈당할수 있기때문에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조선반도평화유지를 위해 미국은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3. 사대매국으로 자멸하는 특등머저리

#### 가련한 특등친미주구

머저리가 사대주의를 한다. 그러한 머저리, 머저리중에서도 특등머저리가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윤석열역도는 중학교때부터 다른 공부 는 죽도록 싫어하면서도 유독 《미국식자유민주주의》, 《미국식시장경제》만은 배우겠다고 관련책들을 노상 끼고다니였으며 1974년 미국대통령의 서울행각때 김포비행장까지 성조기를 들고 달려가 《환영》하였다고 한다.

또 대학때에는 《미국식자유민주주의체제》와 관련한 석사학위논문을 쓴다고 돌

아쳤다.

책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미국학자들이 쓴 《선택할 자유》, 《자유론》만은 즐겨 읽었고 미국노래를 항상 흥얼거리고 미국대통령들의 연설문구를 《명언》으로 간주하며 곧잘 외워대군 하였다고 한다.

이자가 얼마나 친미에 환장하였는가 하는것은 조선말보다 영어에 더 애착을 느끼고 사람들앞에서 영어를 섞은 잡탕말을 밥먹듯하는데서도 알수 있다.

기자들앞에서 거리낌없이 《선제타격은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애티튜드》라고 했는가 하면 미국언론앞에서 《대통령실》을 《피플스 하우스》라고 제멋대로 지어부르고 심지어 《국립추모공원》이라고 부르면 영 촌스럽고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불러야 멋이 있다고 지껄여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또 《법무부 공무원》은 《거버먼트 어

토니》로, 《국제표준》은 《글로벌 스탠더드》, 《소통》은 《커뮤니케이션》, 《인적자본》은 《휴먼 캐피털》, 《가족사업》은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씨벌거리 사람들로부터 저급한 단어를 쓴다는 비난을 받았다. 언어전문가들도 역도에 대해 《영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것같다.》, 《영어사대주의》라고 단죄했다.

이처럼 윤석열역도는 미국이라면 덮어놓고 숭배하고 따르는 숭미에 체질화된 사대매국노이다.

하기에 이자는 검사질을 하다가 정치판에 뛰여든 이후에도 끝수까지 들어찬 친미사대의 본성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였다.

피퇴대통령선거당시 윤석열역도는 《한미포괄적전략동맹》을 회복하겠다고 웨치면서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전 미국부대통령 등 미행정부의 전, 현직

고위관리들을 만나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별의별 노죽을 다 부렸다. 그리고 《대통령》자리에 오른 직후 미국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오자 감지덕지해하면서 《한미공조》를 부르짖었는가 하면 서울주재 미국대사대리를 만나서는 《〈한미안보동맹〉이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굳건한 <한>미관계를 재건하겠다.》고 떠들며 친미주구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또한 상전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측근들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라는것을 무어 미국에 보내여 《한미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수 있게 해줄것을 애걸하면서 미국에 충성하겠다는것을 맹약하였다.

윤석열역도가 얼마나 친미사대에 환장이 되었는가 하는것은 서울 룡산의 국방부청사를 《대통령실》로 개조하면서 백악관건물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대통령실》

의 《인사검증》체제도 미국식으로 바꾸어 놓은데서 여실히 나타났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제일먼저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를 찾아간것도 역대 피뢰 대통령당선자들가운데서 윤석열역도가 처음이라고 한다.

윤석열역도의 친미사대광증은 2022년 5월 미국대통령의 남조선행각시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역대 《대통령》들중 취임후 가장 빨리 미국대통령과 만나게 되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미국대통령을 맞아들인 역도는 이 볼썽사나운 영접행사라는데서 미국국가가 연주되자 상전의 본을 그대로 따라 성조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는 경악할 짓까지 하였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남조선 각계층은 《부끄러워 국제사회앞에서 머리를 들수 없다.》고 하면서 역도를 맹

비난했다.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는데서도 윤석열역도는 상전에게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더 많이 배치하고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줄것을 애걸하였다.

또한 《경제동맹》의 간판을 내들고 괴뢰대기업들의 대규모대미투자계획발표라는 《선물》을 섬겨바치고 미국주도의 반중국경제동맹인 《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가하기 위해 날뛰는 등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고 비렬하고 루추하게 놀아댔다.

윤석열역도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2022년 6월 에스빠냐에서 진행된 나토수뇌자회의에까지 참가하여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 적극 편승해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동맹국인 남조선,

일본,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정상을 <초청>하여 나토동맹과 <태평양동맹>을 하나로 련결시켰다. 미국을 꼭지점으로 하는 유럽과 아시아동맹국들의 반로반중동맹련합이 구축된것이다. 이로써 글로벌신랭전 동맹이 완성되였다.》라고 평하였다.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나서게 된 가련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도는 나토수뇌자회의연단에서 《국제사회에서 력량을 갖춘 <나라>로서 더 큰 책임을 다할것이다.》，《나토와의 협력관계가 보편적가치와 규범을 수호하는 련대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력설하여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민들과 남조선 각계층의 비난배격을 받았다.

윤석열역도는 집권후 남조선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싸드》의 정식배치도 적극 추진하고있다.

그러나 윤석열역도가 극성스럽게 친미

사대매국행위에 매달렸지만 얻은것은 민심의 저주와 규탄이고 상전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것뿐이다.

2022년 8월 미국이 국내물가를 낮추기 위한 《인플레이감축법》에 피뢰산전기자동차들을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포함시킨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윤석열역도를 앞세워 남조선자동차기업에서 돈을 움아낼 때에는 《실망시키지 않겠다.》던 미국이 제 리속을 위해 피뢰들을 가차없이 차버린것을 두고 남조선에서는 《미국이 남조선에 반도체동맹과 바떼리동맹을 요구하면서도 이번에 남조선기업에 대한 배려는 일절 없었다.》, 《현대차가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미국 빼고 다 불편, 고립되는 남조선외교》, 《공급망 흔드는 미, 당하지 않겠다》는 중, 그사

이에 낀 남조선》, 《남조선은 미국에서  
마저 배격당하는 고립무원상황에 처하였  
다.》, 《삼성, 현대, SK의 대규모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배척을 받는  
것은 이미 윤석열의 대미지레대라는것이  
작동하지 않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윤석열패당의 친미사대행위가 몰아온 후  
과에 대해 개탄하고있다.

이처럼 윤석열역도는 추악한 친미사대  
매국망동으로 남조선을 파멸의 늪속에 더  
욱 깊숙이 밀어넣는것은 물론 저자신이  
민심의 지탄속에 력사의 무덤으로 가는  
시각도 앞당기고있다.

## 섬나라의 추악한 하수인

윤석열역도의 취임식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남조선의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래일 취임식에 수류탄테로 하실분 구함.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윤봉길 열사는 일본거두들에게 밥괵폭탄을 던져 즉사시켰다. 오늘날 친일파후손들이 취임식을 하는 암울한 시대에 실낱같은 희망을 불어넣어줄 열사가 필요하다.》는 글이 올랐다.

인터넷에 오른 글에 지적된 친일파후손이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역도는 괴뢰대통령선거기간 가는 곳마다에서 《3.1운동의 정신은 반일이 아니다.》,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오염수방류를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한〉일관계악화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대일정책때문이다.》, 《국민을 친일, 반일로 갈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한>미일군사동맹도 가능하며 유사시 일본<자위대>가 조선반도에 들어올수 있다.》는 충격적인 친일발언을 일삼았다.

역도의 친일망언들이 얼마나 도수를 넘었으면 일본의 《니홍게이자이신붕》까지도 《윤석열은 남조선의 뿌리깊은 반일대 친일의 이분법적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도전해나선 보수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추켜세울 정도였다.

이로 하여 남조선내에서는 윤석열의 발언은 일본극우세력의 주장과 똑같다, 윤석열은 신통히 일본사람처럼 말하고있다, 윤석열이 일본자민당 총재직에 도전한것 같다는 개탄과 함께 과연 윤석열이 조선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문은 윤석열역도의 애비가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받아 히토쓰바시대학에서 류학하면서 일본을 절대적으로 숭배해온 친일파라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과연 친일파후예가 다르다.》라는 답을 얻어 풀리게 되었다고 한다.

윤석열역도는 집권하자마자 미국대통령에 이어 일본수상과 전화대화를 하고는 일본류학경험이 있는 친일파들로 꾸린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섬나라에 파견하여 쌍방관계개선과 이를 위한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구걸하였다.

그런가 하면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고위직들에 리명박역도와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위안부합의》 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친일분자들을 올려놓아 일본의 환심을 사보려고 했다.

친일매국노로서의 윤석열역도의 추악한

정체는 2022년 8월 15일에 한 그 무슨 《경축사》라는데서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망발한데서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이자의 망언을 두고 남조선 각계는 《<광복절경축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식민지배력사를 정치적지배라고 순화했다. 강제징용피해자배상, 일본군성노예 등 현안문제는 외면한채 미래지향적관계라는 모호한 수사만 람발했다.》고 비난단죄했다.

뼈속까지 친일광증이 짝 들어찬 이자는 일본극우세력의 대표자였던 전 수상 아베놈이 개죽음을 당했을 때에는 《존경하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내고 피뢰총리를 일본에 보내어 《조문》하게 하는 한편 제가 직접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에 찾아가 《조의》를 표시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또한 서울에 찾아온 일본외무상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대표단을 만나 《〈한>일관계개선》을 구걸하는것도 했다.

윤석열역도는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도 사사건건 섬나라것들의 비위를 맞추며 풀어보려 모지름을 쓰고 있다.

남조선일본관계에서 초미의 문제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도 섬나라것들의 눈치를 보며 저들이 먼저 300억원정도의 돈을 모아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지불하고 후에 일본측에서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대위변제》방식이라는것으로 풀어보려고 획책하여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일본은 단 1원도 낼

수 없다는 립장인데 <정부>가 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배상 아닌 보상을 하겠다는것은 어불성설》,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것은 사실 일본정부인데 돈을 내야 할 일본이 돈을 내지 않음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최근 윤석열역도는 미국의 부추김밑에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는데로 나아가고있다.

역도는 《대북억지력강화를 위해 일미<한>공조강화가 불가결하다.》, 《<한미동맹>의 억지력강화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일미<한>공동군사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사대국화와 재침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 섬나라족속들의 책동에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있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일본것들과 반공화국압살모의관을 뺏질나게 벌려놓고있다.

또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발광하는 사무라이후예들과 탄도미싸일탐지 및 추적훈련, 미싸일경보훈련, 연합대잠수함훈련 등 각종 연합훈련들을 련속 벌려놓고있는가 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리행에 적극 매달리면서 왜나라것들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있다.

윤석열역도의 친일사대, 친일굴종행위로 하여 더욱 오만해진 일본것들은 《일본은 남조선의 형님벌이다.》, 《일본이 남조선과의 관계에서 지도적립장에 서야 한다.》고 공공연히 췌치면서 괴뢰들을 하대하고 압박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인 일본의 치떨리는 과거죄악을 무마해주고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에 매달리고있는 윤석열역도의 친일매국, 친일굴종행위는 남조선 각계의

반일, 반윤석열투쟁기운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주민들은 《조선반도전쟁위기를 높이는 <한>미일군사협력,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세계정세에 대한 리해도 없고 력사인식도 없이 오직 미국과의 동맹을 신주단지로 모시며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한>미일군사협력을 반대한다!》, 《<한>일력사정의를 실현하라!》, 《굴욕적대일외교를 규탄한다!》, 《윤석열<정부>가 일본과의 굴욕외교를 계속한다면 초불을 들고 다시 탄핵의 길로 쫓아낼것이다.》고 웨치면서 윤석열역도의 친일매국책동을 강력히 단죄배격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피퇴당국이 표창하겠다고 하자 《윤석열의 이름이 들어간 증서를 받는

것은 제 자존심과 량심상 너무 치욕적이다. 마치 일제시기 조선총독에게서 무엇인가 받는 기분》이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부하였다.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섬나라것들에게 아부굴종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고 재침의 문을 열어주고있는 윤석열역도가 민심의 규탄배격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 \* \*

오늘 남조선 각계층은 천하역적 인간 쓰레기인 윤석열역도를 저주하며 《100만의 초불로 윤석열을 조기퇴진시키자!》는 구호를 들고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민심은 천심이며 민족을 반역하고 민심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바로 그 파멸의 길로 질주하고있다.

추악한 사대매국책동과 반공화국대결, 반인민적악정과 파썸독재, 부정부패와 무지무능으로 최악에 최악을 덧쌓고있는 만고역적배들인 윤석열역적패당이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를 날은 멀

지 않았다.

《룽와대》에서 밤이나 낮이나 소름끼치게 울리는 까옥소리가 운석열역적패당의 앞날이 어떤것인가를 예고해주고있다.

## 파멸로 향한 질주

집필 김철민

편성 리경순   장정 김영일

교정 안순광

---

낸 곳 평양출판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쇄 주체111(2022)년 11월 21일

발행 주체111(2022)년 11월 23일

---

